



[4~7] (가)는 설명문 쓰기 모둠 활동을 위해 학생들이 실시한 인터뷰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학생 1'이 작성한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설명문 쓰기 모둠 활동**

[활동 1] 인터뷰를 통해 중심 화제에 대한 내용 수집하기  
 [활동 2] 우리 학교 학생들을 예상 독자로 하여 [활동 1]의 결과를 바탕으로 초고 작성하기  
 [활동 3] 상호 평가를 통한 고쳐쓰기

(가)

학생 1: 이번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숲가꾸기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연구원: 숲가꾸기 사업이란 나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숲을 가꾸고 나무를 보살피는 일로, 나무를 심고 벌채하기까지 진행되는 어린나무 가꾸기, 숲아베기, 큰나무 가꾸기 등의 작업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학생 2: ㉠ 그렇다면 숲을 이루는 나무들의 나이와 상태에 따라 어떤 작업을 할지가 결정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연구원: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숲아베기는 나무가 굵고 곧게 자라도록 우량한 나무 주변의 생장이 좋지 않은 나무를 잘라 주는 작업인데요, 나무를 심은 후 15년이 지난 다음부터 5~10년을 주기로 2~3회 실시합니다.

학생 2: ㉡ 그럼 심은 지 15년에서 40여 년 정도 되는 나무가 많은 숲은 숲아베기를 통해 숲을 가꾸어야겠군요. 그렇다면 숲아베기와 같은 숲가꾸기 사업을 제때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구원: 나무들 간에 가지 뻗음 경쟁이 치열해져 나무들이 굵게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고급 목재의 생산이 어려워지는 등 숲의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숲을 가꾸어야 할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요.

학생 1: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 숲가꾸기를 하지 않으면 산불에도 취약해진다고 하던데, 숲가꾸기와 산불과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연구원: 숲가꾸기를 하지 않아 나무가 뻗뻗할 경우 불이 나무와 나무 사이로 번지면서 산불이 빠르게 확산됩니다. 그런데 숲가꾸기 사업을 진행한 지역에서는 나무들 사이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불이 나무 사이로 번지는 대신 땅 위의 잡초 등을 태우다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산불을 빠르게 잡을 수 있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학생 2: ㉢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산불을 빠르게 잡을 수 있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니 숲가꾸기 사업은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숲가꾸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연구원: 국유림과 달리 민간 소유의 산림은 숲가꾸기 사업을 강제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민간 산림 소유주들의 숲가꾸기 사업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생 1: ㉣ 인터뷰 전에 산림청 홈페이지를 살펴봤는데, 방금 말씀하신 정책이 혹시 숲가꾸기 지원 사업인가요?

연구원: 네, 그렇습니다. 잘 알고 있네요. 이 밖에도 산림청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디지털 산림 경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학생 2: ㉤ 숲가꾸기 사업과 그 지원 사업, 디지털 산림 경영 기반 조성 등과 같은 노력 덕분에 우리의 숲이 더욱 건강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겠네요. 끝으로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연구원: 나무를 심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나무를 잘 가꾸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 숲가꾸기를 진행한 이후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무려 10배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을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생 1, 2: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나)

**제목: 나무는 무력무력, 숲의 가치는 쑥쑥! 숲가꾸기 사업**

숲은 가꾸어야 할 시기를 놓치면 나무의 가치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산불, 병충해,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도 취약해진다. 따라서 나무의 성장 과정에 따라 어린나무 가꾸기, 숲아베기, 큰나무 가꾸기 등과 같은 작업을 실시해야 하는데, 산림청에서는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숲을 가꾸고 보살피는 '숲가꾸기 사업'을 지속해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80년대 나무 심기 운동을 통해 산을 푸르게 만드는 데에는 성공하였으나, 자원으로 쓰여질 수 있는 산림의 양은 126m<sup>3</sup>/ha로 산림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또한 전체 산림에서 숲아베기가 필요한 15~40년생의 나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67%에 이르고 있어 숲가꾸기 사업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숲가꾸기를 실시하면 나무가 굵고 곧게 자라기 때문에 고급 목재를 생산할 수 있어 산림의 경제적 가치가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나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산림의 생태적 건강성도 향상된다. 또한 장마나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한 산사태를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으며, 산불 발생 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약 18조 원에 불과했던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한 이후 22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민 1인당 연간 428만 원의 혜택을 보는 셈이라고 한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민간 산림 소유주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 산림 소유주가 간단한 지원 신청서만 제출하면 숲가꾸기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다. 숲가꾸기 사업은 주로 봄에 시행한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산림 자원 육성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 산림 경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며 우리의 후손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을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4. ㉠~㉤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발언 내용에 대해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 ② ㉡: 상대방의 발화 의도를 확인한 후 이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 ③ ㉢: 상대방의 발언을 재진술하며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 ④ ㉣: 정보의 출처를 언급하며 상대방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 ⑤ ㉤: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며, 긍정적 전망을 드러내고 있다.

5. 다음은 (가)의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해 ‘학생 1’과 ‘학생 2’가 대화를 나눈 후 작성한 인터뷰 계획표이다. (가)를 고려할 때,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만을 고른 것은?

- 숲가꾸기 사업이 생소한 학생들을 위해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 소개해 달라고 말하며 인터뷰를 시작해야겠어. .... ㉠
- 숲가꾸기 사업의 효과를 알 수 있는 실제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달라고 부탁해야겠어. .... ㉡
-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 달라고 부탁해야겠어. .... ㉢
- 숲가꾸기 사업을 적절한 시기에 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설명해 달라고 말해야겠어. .... ㉣
- 숲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고 부탁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해야겠어. .... ㉤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⑤ ㉢, ㉣, ㉤

6. (가)와 (나)를 고려할 때, ‘학생 1’이 글을 쓰기 위해 떠올렸을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터뷰에서 알게 된 숲가꾸기 사업의 목적이 드러나게 제목을 구성해야겠군.
- ② 숲가꾸기 사업과 관련된 정책을 소개하며 숲가꾸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소개해야겠군.
- ③ 숲을 가꾸지 않았을 때의 부작용을 추가로 제시하며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해야겠군.
- ④ 산림 선진국의 숲가꾸기 사업의 진행 현황을 제시하며 산림 관리가 숲가꾸기 사업으로 전환된 배경을 소개해야겠군.
- ⑤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경제적 측면과 생태적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여 숲가꾸기 사업의 가치를 강조해야겠군.

7. (나)에 대한 ‘학생 2’의 상호 평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학생 2’의 상호 평가 내용 |  |
|------------------|--|
| 잘한 점             | 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뒷받침한 점 ... ①                      |
|                  | 시간 순서에 따른 내용 전개 방식을 활용하여 중심 화제의 변화 과정을 설명한 점 ..... ② |
| 수정할 점            | 2문단에서 이중 피동 표현을 사용한 점 ..... ③                        |
|                  | 3문단에서 의미가 중복되는 단어를 사용한 점 ..... ④                     |
|                  | 4문단에서 글의 흐름과 어긋나는 문장을 사용하여 통일성을 떨어뜨린 점 ..... ⑤       |

[8~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 **작문 과제**: 금융 교육 활성화를 위한 건의문 작성하기
- **예상 독자**: 우리 학교의 금융 교육 프로그램 담당 선생님

[학생의 초고]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에서 실시한 금융 교육 특강에 참여했던 1학년 문○○입니다. 특강이 끝난 후 함께 참여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융 교육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과 인원 제한으로 인해 이번 특강에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다는 점을 다들 아쉬워했습니다. 또한 금융 지식만 전달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점도 아쉬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금융 교육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융 교육 주간을 운영하여 금융 교육 시간을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학교에서 진행하는 금융 교육은 이번 특강을 포함하여 학기별 2시간씩, 총 4시간뿐입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금융 이해력을 신장시키고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설계해 보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금융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입니다.

다음으로 금융사에서 지원하는 ‘1사(社) 1교(校)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금융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금융 교육 특강이 소수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은 강사 섭외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강사들을 쉽게 섭외할 수 있어 더 많은 학생들이 금융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알려줄 수 있는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금융 이해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저축과 신용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등 실생활과 관련된 금융 태도 부문의 점수가 금융 지식 부문 점수의 48%에 그친다고 합니다. 또한 금융에 대한 태도 점수가 높은 학생일수록 성인이 되어서 더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학교의 금융 교육은 금융에 대한 지식 측면뿐만 아니라 올바른 태도를 형성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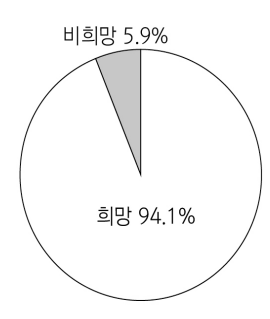
8. ‘학생의 초고’에 사용된 글쓰기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건의 내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 ② 건의 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있다.
- ③ 글을 쓰게 된 계기를 설명하기 위해 건의 내용과 관련된 개인적인 경험을 언급하고 있다.
- ④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글의 내용을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담화 표지를 사용하고 있다.
- ⑤ 건의 내용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건의 내용의 실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측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9. <보기>는 ‘학생의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우리 학교 학생 대상 설문 조사 결과

|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융 교육 참가 희망 여부  |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금융 교육 내용은 무엇인가?   |    |     |               |       |             |       |    |       |
|---|---|----|-----|---------------|-------|-------------|-------|----|-------|
|  <p>비희망 5.9%<br/>희망 94.1%</p> | <p>(중복 응답 허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내용</th> <th>응답률</th> </tr> </thead> <tbody> <tr> <td>저축 및 신용 관리 교육</td> <td>84.5%</td> </tr> <tr> <td>금융 용어 이해 교육</td> <td>24.5%</td> </tr> <tr> <td>기타</td> <td>18.4%</td> </tr> </tbody> </table> | 내용 | 응답률 | 저축 및 신용 관리 교육 | 84.5% | 금융 용어 이해 교육 | 24.5% | 기타 | 18.4% |
| 내용  | 응답률   |    |     |               |       |             |       |    |       |
| 저축 및 신용 관리 교육   | 84.5%   |    |     |               |       |             |       |    |       |
| 금융 용어 이해 교육   | 24.5%   |    |     |               |       |             |       |    |       |
| 기타  | 18.4%   |    |     |               |       |             |       |    |       |

(나) 신문 기사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최근 5년 간 20대 연령층의 금융 이해력 점수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이전 5년 간의 조사 때보다 평균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분한 금융 교육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학교에서 금융 교육 주간을 꾸준히 운영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금융 지식 측면의 점수는 높아졌으나 금융 태도 측면의 점수는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향후 금융 교육의 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전문가 의견

“영국에서는 6월 중 한 주를 금융 교육 주간으로 지정하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금융 교육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핀란드에서는 학생들이 신용 불량자를 직접 만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갖도록 경각심을 심어 주어 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만 학생들의 금융 이해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 ① (가)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금융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해야겠군.
- ② (나)를 활용하여, 금융 이해력을 높인다는 금융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 측면뿐만 아니라 금융 태도 측면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야겠군.
- ③ (다)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위한 금융 태도 교육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사례로 제시해야겠군.
- ④ (가)와 (나)를 활용하여, 금융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보다 금융 교육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해야겠군.
- ⑤ (나)와 (다)를 활용하여, 금융 교육 주간을 운영함으로써 금융 교육 시간을 늘려 금융 이해력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해야겠군.

10. [A]에 들어갈 내용을 <조건>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 건>

- 비유적 표현을 통해 금융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
- 건의 내용이 실현되었을 때의 기대 효과를 언급할 것

- ①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융 교육은 청소년의 금융 이해력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보다 많은 학생들이 금융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②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어린 시절부터 금융 교육을 받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1사 1교 금융 교육’과 같은 프로그램을 우리 학교에서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③ 청소년기에 실시하는 금융 교육은 밝은 미래를 맞이하게 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 교육을 지식 측면에 초점을 맞춰 꾸준히 진행된다면 청소년들은 미래를 향한 안정적인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④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융 교육만으로는 금융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충분한 금융 교육 시간을 확보하고 금융에 관한 태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⑤ 금융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채로 현대 사회를 사는 것은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것만큼 위험합니다. 금융 교육이 활성화된다면 금융 이해력의 신장과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의 설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11. <보기>의 (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선생님 :** 음운 변동에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없던 음운이 새로 더해지는 첨가, 두 음운이 합쳐져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축약이 있습니다. 그럼 아래 단어들에 나타난 음운 변동의 유형을 파악해 봅시다.

㉠ 맨입[맨닙]   ㉡ 쌓아[싸아]   ㉢ 입학[이팍]   ㉣ 칼날[칼랄]

**학생 :** \_\_\_\_\_ (가)

**선생님 :** 네, 맞습니다.

- ① ㉠은 ‘첨가’에 해당하고, ㉢은 ‘축약’에 해당합니다.
- ② ㉠은 ‘교체’에 해당하고, ㉢은 ‘첨가’에 해당합니다.
- ③ ㉡은 ‘탈락’에 해당하고, ㉢은 ‘교체’에 해당합니다.
- ④ ㉡은 ‘교체’에 해당하고, ㉢은 ‘축약’에 해당합니다.
- ⑤ ㉢은 ‘탈락’에 해당하고, ㉣은 ‘첨가’에 해당합니다.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의사능력이란 ‘자기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 내지 지능’을 의미한다. 사람이 자신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려면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의사능력이 없는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 즉 법률행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의사무능력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법률행위를 무효화하려면 법률행위 당시 자신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에 민법에서는 의사무능력자 여부, 즉 의사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나이나 법원의 결정이라는 일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제한능력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그리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등이 제한능력자에 해당되는데, 이들은 독자적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능력과 구분되며, 자신의 의사무능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제한능력자는 단독으로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10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제한능력자제도라고 한다. 이때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의 취소 여부는 제한능력자 측, 즉 제한능력자 본인이나 그의 법정대리인의 의사에 따라서만 결정된다. 제한능력자 측에서 취소권을 행사할 경우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지만, 행위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그대로 효력이 유지된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은 후견등기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제한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이를 항상 확인하지는 않으므로 계약을 한 후 자신이 계약을 한 상대방이 제한능력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제한능력자 측은 자신의 법률행위에 대해 10년 내에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을 갖기 때문에 제한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이에 민법은 제한능력자를 보호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상대방을 위해 ‘상대방의 확대촉구권’, ‘상대방의 철회권·거절권’, ‘제한능력자의 속임수’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 상대방의 확대촉구권은 제한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계약 취소 여부에 대한 확대촉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때 확대촉구는 제한능력자에게는 할 수 없으며,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나 제한능력자가 행위능력이 된 경우에만 요구할 수 있다.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를 제외하고 확대촉구를 받은 사람은 상대방이 설정한 유효기간 내에 취소 여부에 대한 확대촉구를 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확대촉구를 하지 않으면 제한능력자와 계약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다.

상대방의 철회권·거절권은 제한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제한능력자 측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상대방의 철회권은 제한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와 계약한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이고, ㉢ 상대방의 거절권은 제한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와 계약한 사실을 인지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제한능력자가 단독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다만 위의 철회권·거절권은 제한능력자 측에서 해당 법률행위에 대해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만 권리가

인정된다.

제한능력자의 속임수는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를 써서 자신을 행위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나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를 써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제한능력자의 취소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인 갑이 자신이 성년인 것처럼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의 적극적인 사기수단을 써서 을과 계약을 하는 법률행위를 했다면 갑의 취소권이 배제됨은 물론이고 갑의 법정대리인의 취소권까지 배제되는 것이다.

이처럼 민법에서는 제한능력자제도를 통해 제한능력자가 행한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일정한 요건 하에 취소할 수 있게 하여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고 있다. 또한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 역시 규정함으로써 제한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 피성년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

\* 피한정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행위능력이 부분적으로 제한된 자.

\* 단독행위: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행위.

1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제도가 발전한 과정을 제시한 뒤 전망을 예측하고 있다.
- ② 특정 제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제도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 ③ 특정 제도가 변화된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의 의의를 평가하고 있다.
- ④ 특정 제도를 바라보는 상반된 입장을 제시하고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다.
- ⑤ 특정 제도의 영향력을 분석한 뒤 사회적 인식의 변화 양상을 서술하고 있다.

17.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미성년자의 경우 따로 법원의 결정을 받지 않아도 제한능력자로 규정한다.
- ② 의사능력이 있는 제한능력자의 경우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다.
- ③ 가족관계등록부나 후견등기부를 통해 계약을 한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제한능력자는 일정 기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처음부터 무효로 만들 수 있다.
- ⑤ 법원에서 제한능력자로 규정한 자는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때마다 자신의 의사무능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1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제한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와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 모두에게 행사할 수 있다.
  - ② ㉡는 제한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한다.
  - ③ ㉠과 ㉣는 모두 제한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에게 직접 행사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 ④ ㉠과 ㉣는 모두 제한능력자 측이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
  - ⑤ ㉠~㉣는 모두 제한능력자제도에 의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으로부터 제한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19.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17세인 A는 약기를 1,000만 원에 구입하였다. 이 사실을 1년 뒤에 알게 된 A의 법정대리인은 판매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약기를 판매한 것이므로, 판매자에게 계약 취소를 요구하였다. 판매자는 판매 당시 직원의 강요가 없었고 약기의 특성상 판매 후에는 반품 및 환불이 불가능을 설명하였기 때문에 판매 과정에 잘못이 없다며 계약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다.

- ① A가 약기를 구입한 후 성년이 된 다음 날은 계약 취소가 불가능하겠군.
- ② A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약기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겠군.
- ③ A의 법정대리인이 A의 약기 구매 사실을 1년 뒤에 알았기 때문에 이 계약은 취소될 수 없겠군.
- ④ A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판매자를 믿게 하고 계약을 했다면 이 계약은 취소될 수 없겠군.
- ⑤ 판매자가 계약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A의 법정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없겠군.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나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단 한 가지도 값나가는 게 없을까 놀라고 민망해 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비롯해서 가깝게 지내던 조카들은 그가 쓰던 걸 뭐든지 한 가지씩이라도 얻어 갖길 원했다. 다들 그렇게 아쉬운 처지가 아닌데도 그런다는 건 그 뜻이 소유나 쓸모에 있지 않고 아끼고 간직하려는 데 있으려니 싶어 나는 목이 메게 감격을 했다. 크게 성공하거나 성취한 건 없어도 생전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많이 사랑받았다는 증거 같아서 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의 유품을 공평하게 나눴다. 그러나 모자는 다 내가 가졌다. 그건 누가 달라지도 않았지만 달라고 해도 안 주었을 것이다.

마지막 일 년은 참으로 아까운 시절이었다. 죽을 날을 정해놓은 사람과의 나날의 아까움을 무엇에 비길까. 애를 끊는 듯한

애달픔이었다.

(중략)

그런 옛일에 얽힌 농담이라면 얼마든지 재미나게도 그윽하게 할 수 있었으련만 나는 고약한 성깔에 잔뜩 치받쳐 있었다. 여복해야 그가 딱하다는 듯이 그러나 역시 농담으로 받았다. “당신이야말로 왜 그래? 꼭 틈바구니에 낀 쥐 같잖아.” 그리고 피식 웃더니 탄식하듯 덧붙였다. “생전 ㉠ 틈바구니에 끼여 봤어야지.” 그의 목소리가 하도 연민에 차 있어서 나는 대꾸하지 못했다. 죽어 가는 사람으로부터의 연민은 감동적이었다. **울어버릴 것 같았다.**

CT 촬영은 참으로 놀라운 첨단 과학이었다. 뇌를 가로세로 여러 장으로 슬라이스하듯이 나누어 찍은 단면 사진은 내 눈으로도 고루 퍼진 암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선명했다. 뇌는 혈관의 회로가 달라서 항암제가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그에게 남아 있는 유일한 치료법은 방사선을 뇌에다 쬐는 거였다. 방사선 치료란 죽는 연습이었다. 그 치료엔 아무도 입회하지 못했다. 방사선과 의사까지도 그를 치료대에 혼자 고정시켜 놓고 나와서 밖에서 컴퓨터 화면을 보며 조종했다. 그 안에서 그는 어떤 기분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방사선이란 어떻게 생긴 빛일까? 그 깊이 모를 외로움과, 너무 밝아 차라리 **암흑과 상통할 것 같은 빛에 대한 공포감**은 죽음에 대한 상상력과 너무도 유사했다. 그는 이마가 까맣게 타도록 방사선 치료를 받았지만 다시 해 본 CT 촬영에서 암은 소멸되지도 줄지도 않은 채였다. 미국 가 있는 막내를 잠시 귀국토록 했다. 돌아가신 후 장례에 맞춰 오려고 허둥대는 것보다는 생전에 뵈러 오는 게 효도가 아니겠느냐는 게 딸 자식들의 의견이기도 했다. 아버지한테 뭐 사다 드리면 좋겠느냐고 막내가 전화로 물어 왔다. 약 종류를 묻는 말투였다. 그러나 그의 병세도 그렇지만, 때도 이미 미국엔 별의별 신묘한 약, 불로초 같은 것까지도 있는 것처럼 여기던 촌스러운 시대가 아니었다. 나는 막내에게 모자를 사 오라고 말했다. 최고급으로 사 오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과연 막내가 사 온 모자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의 모자의 원형과 가장 가까웠다. 순모로 된 통짜 중절모였고 비단 리본이 달려 있었다. 그러나 테가 너무 넓어 신사 모자라기보다는 카우보이 모자를 연상시켰다. 아니나 다를까, 네 살짜리 손자 녀석이 그 모자를 보더니 “와아, 장고 모자다.” 하면서 그걸 빼앗고 싶어 했다. 녀석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의 주인공 장고가 그런 모자를 쓰고 있다고 했다. 그는 모자를 쓴 채 안 빼앗기려고 이리저리 도망을 다녔다. 여전히 비틀대며, 손자가 울음을 터뜨려도 그는 그 모자를 내놓지 않았다. **손자와의 마지막 장난**이었다. 마지막 한 달가량 자리보전하고 있을 때를 빼고는 그는 집에서도 즐창 그 모자를 쓰고 있었다. 막내에 대한 사랑 때문에도 그 모자를 아꼈겠지만, 넓은 테는 방사선 치료로 시꺼멓게 탄 이마를 가려 주는 데 안성맞춤이었다. 그 장고 모자가 그의 여덟 번째 모자이자 마지막 모자가 되었다.

나는 요새도 가끔 그가 남긴 여덟 개의 모자를 꺼내 본다. 그 안에서 **머리카락 한 오라기**라도 찾아보려고 더듬어 보지만 번번이 헛손질로 끝난다. 그 여러 개의 모자는 멋이나 체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민머리를 가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의 몸을 차디찬 땅속에 묻은 건 확실한데 아침마다 우수수 지던 그 슬한 머리카락은 지금 어느 만큼 멀리 흩어져 티끌로 떠도는

결까. 생명의 가없음이 티끌과 다를 바 없다는 속절없는 생각에 잠기기도 한다. 그의 흔적을, 남긴 물질에서 찾는 것보다는 남긴 말이나 생각에서 찾는 게 그래도 조금은 덜 허전하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고, 잘난 척할 줄도 몰랐기 때문에 담소는 즐겼지만 그럴듯한 말은 할 줄 몰랐다. 우리집엔 그 흔한 가훈도 없다. 그의 말이 생각나는 것도 그가 끼면 편안하고 여유로워지는 담소 분위기이지, 멋있거나 뜻 깊은 말뜻은 아니다.

오직 틈바구니만이 예외다. 내가 생전 틈바구니에 끼여 보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런 생각이 나를 자꾸 심각하게 한다. 그가 나 대신 가 주던 동사무소나 세무서에 불일 보러 가서 똑똑지 못하게 굴다가 구박 맞으면 이게 틈바구니가 싶기도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칼자루 권 자와 칼날 권 자, 통일꾼과 반통일꾼이 서로 목청을 높여 싸우는 걸 봐도 전처럼 선뜻 어느 쪽이 옳거나 양자택일이 안 되고, 또 그 놈의 틈바구니에 사로잡히게 된다. 여봐란듯이 틈바구니에 끼기 위해선 거친 두 목청 사이에 낀 틈바구니의 숨결을 찾아내야만 할 것 같다. 어찌면 그는 그때 삶과 죽음의 틈바구니에서 어느 만큼은 내 원색적인 분노를 관조할 수도 있었기에 해 본 단순한 연민의 소리일 뿐인 것을 내가 괜히 심각하게 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여전히 틈바구니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지 않는다. 그가 남긴 모자가 나에겐 모자라는 물질 이상<sup>1</sup>이듯이 틈바구니란 말 또한 말뜻 이상의 것, 한없이 추구해야 할 화두임을 면할 수가 없다.

- 박완서, 「여덟 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 -

2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특정 인물을 풍자하고 있다.
- ② 독백적 진술을 활용하여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동일한 공간에서 사건이 반복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 ④ 장면이 빈번하게 교차되며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인물의 외양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2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카들’은 아쉬운 처지가 아니었지만 ‘남편’의 유품을 얻기를 바랐다.
- ② ‘나’는 ‘남편’의 병세가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나아지는 것을 느꼈다.
- ③ ‘딴 자식들’은 ‘남편’의 생전에 ‘막내’를 귀국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 ④ ‘막내’는 ‘남편’을 위해 카우보이 모자가 연상되는 중절모를 사 왔다.
- ⑤ ‘남편’은 잘난 척할 줄 몰랐기 때문에 평소 멋있거나 그럴듯한 말을 하지 않았다.

22. ㉠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야기의 초점을 ‘남편’에서 ‘막내’로 전환하고 있다.
- ② ‘나’에게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을 유발하고 있다.
- ③ ‘남편’의 죽음에 대한 ‘나’의 미안함을 보여주고 있다.
- ④ ‘막내’에게 ‘남편’의 죽음을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 ⑤ ‘나’의 가족에게 공동체적 삶의 의미를 성찰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2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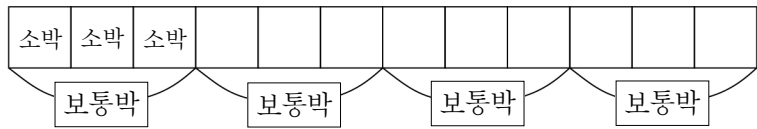
이 작품은 죽음을 앞둔 남편의 모습을 관찰하고 남편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나’의 시선을 통해 남편에 대한, 그리고 죽음에 대한 ‘나’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죽은 남편이 남기고 간 모자를 간직하며 남편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드러낸다. 또한 남편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 따뜻한 가족애를 보여 주기도 한다.

- ① 남편의 모자를 ‘물질 이상’의 것으로 여기며 모자를 모두 간직하는 ‘나’의 모습에서, 남편에 대한 ‘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② 남편이 농담으로 받은 말에 ‘울어버릴 것 같’다고 느끼는 ‘나’의 모습에서, 남편의 말에 ‘나’에 대한 연민이 담겨 있다고 믿고 있는 ‘나’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③ 방사선 치료를 받는 남편의 ‘빛에 대한 공포감’을 덜어 주려는 ‘나’의 모습에서, ‘암흑과 상통할 것 같은’ 죽음에 대해 느끼는 ‘나’의 두려움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④ 힘겹지만 ‘손자와의 마지막 장난’을 하며 가족들과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남편의 모습에서, 가족에 대한 남편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⑤ 남편이 남긴 모자에서 ‘머리카락 한 오라기’라도 찾고 싶어하는 ‘나’의 모습에서, 남편을 그리워하는 ‘나’의 애절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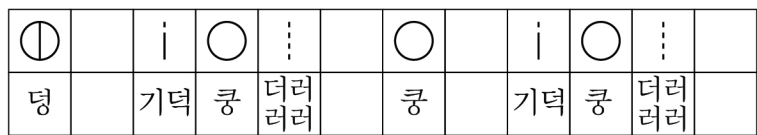
[24~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악의 장단이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주기로 소리의 길이와 강약이 규칙적으로 되풀이되는 것을 말하며, 기본 단위인 ‘박’으로 구성된다. 박은 음의 길이를 재는 단위로, 기준이 되는 박을 보통박이라 하고 보통박을 더 작은 단위로 쪼갠 박을 소박이라 한다. 여러 개의 소박이 모여서 하나의 보통박을 이루며, 우리 민요 장단은 굿거리장단처럼 3개의 소박으로 이루어진 보통박이 4번 나타나는 3소박 4보통박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정간보에 나타낼 때는 <그림 1>과 같이 12정간(칸)이 필요하다.



<그림 1>

국악 연주에서 장단을 맡는 대표적인 악기는 장구로, 장단을 맞추기 위해 장구의 가죽 면을 치는 것을 ‘점(點)’이라 한다. <그림 2>는 굿거리장단의 기본 장구 장단을 나타낸 것으로 장구 장단을 정간보에 기보할 때는 각각의 점에 해당하는 부호를 사용하며, 악기에서 울려 나오는 특징적인 소리를 입으로 흉내 낸 구음을 부호 아래에 첨가하기도 한다.



<그림 2>

① 장구 장단을 칠 때는 한 손으로 채를 잡아 채편을 치고 다른 손으로는 북편을 치는데, 장구의 채편과 북편을 동시에 치는 것을 ‘텅’이라 하고 정간보에 ‘①’로 표시한다. 이는 합장단이라고도 하며 주로 음악을 시작할 때 사용한다. 채편을 한 번 치는 것을 ‘덕’이라 하고 ‘|’로 표시하며, 채편을 칠 때 짧은 꾸밈음을 붙여 치는 것을 ‘기덕’이라고 하고 ‘i’로 표시한다. ‘기덕’은 채편을 겹쳐 친다고 하여 겹채라고도 한다. 채의 탄력을 이용하여 채를 굴리며 채편을 칠 때는 ‘더러러’라고 하고 ‘∴’로 표시한다. ‘덕’, ‘기덕’, ‘더러러’에서는 북편을 치지 않고 채편만 치며, 장구의 북편만 칠 때는 ‘쿵’이라 하고 ‘○’로 표시한다.

또한 정간보에는 점의 길이도 나타낼 수 있다. 한 정간에 점을 나타내는 부호 하나가 있으면 그 점은 한 소박이 되고, 한 정간에 점을 나타내는 부호 하나가 있고 그 다음 정간이 빈 칸으로 남아 있으면 그 점은 두 소박이 되는 식이다. 비어 있는 정간은 앞의 소리를 연장한다는 표시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그림 2>에서 첫 번째 보통박의 ‘텅’은 두 소박, ‘기덕’은 한 소박이 된다. 또한 장단을 칠 때는 기본이 되는 장단을 흐트러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악곡의 흐름이나 연주자의 해석에 따른 변주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연주자에 따라 ‘기덕’을 ‘덕’으로 바꾸거나 ‘쿵더러러’를 ‘쿵덕쿵’으로 바꾸어 변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주는 악곡의 흐름에 맞게 장단에 변화를 주어 음악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한편 실외음악이나 사물놀이처럼 큰 소리를 내야 할 때에는 북편을 손 대신 궁채로 치기도 한다. 또한 채편을 칠 때는 채편 가죽의 중앙 부분인 북편을 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독창 또는 독주의 반주나 실내악 연주처럼 소리를 작게 내어야 할 경우에는 가죽의 가장자리 부분인 변죽을 친다. 변죽은 작고 높은 소

리가 나는 반면, 북편은 크고 낮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연주 상황에 어울리는 소리가 나도록 치는 것이다.

장단은 단지 음악의 진행을 시간적으로 안배하는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주자나 창자의 호흡을 조절하며 음악의 분위기를 이끌어 나간다. 따라서 국악을 깊이 있게 감상하려면 장단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우리 음악에 담긴 흥을 더욱 잘 느낄 수 있을 것이다.

24.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악에서 장단의 개념은 무엇일까?
- ② 장단을 구성하는 단위는 무엇일까?
- ③ 정간보에 점의 강약을 나타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 ④ 장단을 변주할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까?
- ⑤ 국악 감상에서 장단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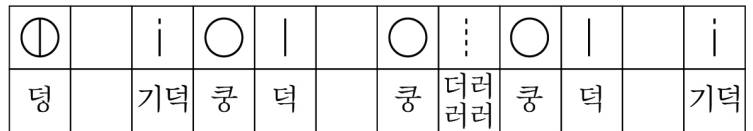
25.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간보를 보면 연주할 점의 길이를 알 수 있다.
- ② 크고 낮은 소리를 내기 위해 채편의 변죽을 친다.
- ③ 여러 개의 보통박을 쳐서 하나의 소박을 연주한다.
- ④ 북편을 치는 도구는 기본이 되는 장단에 의해 결정된다.
- ⑤ 기본이 되는 장단을 연주할 때에는 북편과 채편을 동시에 칠 수 없다.

2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창작 장단**을 연주한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학생:**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나만의 **창작 장단**을 만들어 연주해 볼까? 3소박 4보통박으로 치면 재미있을 것 같아. 우선은 정간보에 부호와 구음을 표시하고 그대로 연주해 봐야지.



- ① ‘i(덕)’은 각각 두 소박으로 연주해야겠군.
- ② 마지막 보통박에서는 채편만 치면 되겠군.
- ③ 합장단으로 시작하고 겹채로 마무리해야겠군.
- ④ 세 번째 보통박에서는 종류가 다른 세 점을 연주해야겠군.
- ⑤ 첫 번째와 마지막 보통박의 세 번째 소박에서는 ‘i(기덕)’을 쳐야겠군.

[27~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A] 문 열자 선뜻!  
[A] 먼 산이 이마에 차라.

우수절(雨水節)\*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B] 새삼스레 눈이 덮인 뗏부리와  
[B] 서늘옅고 빛난 이마받이하다.

[C] 얼음 금 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  
[C]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D] 용승거리고\* 살아난 양이  
[D] 아아 꿈 같기에 설어라.

[E]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돋고  
[E] 움짚 아니 기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꽃 피기 전 철 아닌 눈에  
햇웃\* 벗고 도로 चु고 싶어라.

- 정지용, 「춘설(春雪)」 -

\* 우수절: 24절기의 하나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임.  
\* 용승거리고: 춥거나 두려워 몸을 궁상맞게 몹시 움츠려 작게 하고  
\* 햇웃: 안에 숨을 두어 지은 겨울웃.

(나)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난분분\* 난분분 춤추었겠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바람 한 자락 불면 획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햇숨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 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 보아라

봄이면 가지는 그 한번 댄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 고재중, 「첫사랑」 -

\* 난분분: 눈이나 꽃잎 따위가 어지럽게 흩날리는 모양.

27.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명암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시적 안정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28.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화자는 갑작스럽게 마주한 풍경에 대한 놀라움을 ‘선뜻!’이라는 시어로 표현하고 있다.
- ② [B]에서 화자는 [A]에서 이마에 닿을 듯 차갑게 느껴졌던 먼 산의 경치를 ‘이마받이’로 부각하고 있다.
- ③ [C]에서 화자는 ‘얼음’이 녹고 ‘바람’이 새로 부는 것을 통해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 ④ [D]에서 화자는 겨우내 ‘용승거리고’ 살아온 자신을 돌아보며 [C]에서 보인 자신의 태도를 허무하게 여기고 있다.
- ⑤ [E]에서 화자는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모습을 ‘새순’ 돋는 미나리와 오물거리는 ‘고기 입’으로 생동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

29.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시에서 ‘낯설게 하기’는 반복과 변형, 역설, 이질적인 대상 간의 결합, 언어의 비유적인 결합, 감각의 전이 등을 통해 사물을 재인식하거나 그 이면에 주목하여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는 방법이다.

- ① (가)의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에서는 흰 옷고름의 시각적 이미지를 향기로움이라는 후각적 이미지로 표현함으로써 봄에 대한 화자의 느낌을 나타내고 있군.
- ② (가)의 ‘꽃 피기 전 철 아닌 눈’에서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봄과 눈을 결합함으로써 다시 돌아올 겨울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군.
- ③ (나)의 ‘난분분 난분분’과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에서는 시어를 반복하거나 변형함으로써 눈꽃을 피우기 위해 노력하는 눈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군.
- ④ (나)의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 보아라’에서는 가지에 피어난 눈꽃을 ‘황홀’과 비유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눈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기쁨을 드러내고 있군.
- ⑤ (나)의 ‘아름다운 상처’에서는 표면적으로 모순이 되는 두 시어를 연결하는 역설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시련을 겪고 피어나는 것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군.

[30~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는 독특한 방식으로 선물을 ㉠ 주는 ‘포틀래치(potlatch)’라는 관습이 있다. 행사를 연 마을의 수장은 자신이 쌓아온 재물을 초대받은 다른 마을의 수장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기도 하고, 심지어 그것을 파괴하기도 한다. 손님들은 선물을 받고 자기 마을로 돌아와 ‘복수’를 맹세하는데, ‘복수’의 방법이란 그동안 선물을 준 사람들에게 답례 포틀래치를 열어 자기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초기 인류학자들은 이러한 포틀래치라는 관습을 자신의 재산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주는 일반적인 증여로 파악하고, 위신을 얻기 위해 재산을 탕진하는 비합리적인 생활양식으로 이해하였다. 하지만 모스와 레비스트로스 같은 후대 인류학자들은 포틀래치를 호혜적 교환 행위로 바라보았다. 호혜적 교환이란 일반적인 경제적 교역, 즉 사물의 가치를 측정하여 같은 값으로 교환하는 행위와는 달리, 돌려받을 대가나 시기를 분명하게 정하지 않고 사물을 교환하는 방식을 말한다. 모스는 포틀래치가 자발성을 띤 증여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교환의 성격을 지닌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의무적으로 답례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선물을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모스는 이러한 포틀래치가 집단 간의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레비스트로스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포틀래치에 나타나는 호혜적 교환을 사회가 성립되는 원리로 제시하였다. 폐쇄적인 집단은 환경의 변화나 주변의 침략에 쉽게 무너질 수 있으므로,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서 교환을 하며 다른 집단과 사회적 유대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포틀래치와 같이 상대방에게 선물을 주는 행위가 상대방에게 부채감을 ㉡ 주고, 이 부채감이 다시 선물을 주는 행위로 이어지게 만들어 결국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다른 집단과 동맹을 맺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집단과 결혼을 하는 것이므로, 레비스트로스는 교환을 위해 ㉢ ‘친족 간의 결혼 금지’가 만들어졌다고 말한다. 그는 친족 간의 결혼 금지로 인해 우리 부족의 사람이 다른 부족으로 넘어가고, 새로운 사람이 우리 부족에 들어오는 호혜적 관계가 형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부족 간의 호혜적 교환이 가능해져 사회적 공동체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친족 간의 결혼 금지라는 규칙을 바탕으로 공동체에 필요한 다른 규칙들이 형성됨으로써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문명 상태로 접어들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처럼 레비스트로스는 포틀래치를 교환의 구조나 사회 규칙이라는 체계의 틀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인류의 보편적인 현상인 친족 간의 결혼 금지와 같은 결혼 제도도 인간의 본성이 아닌 사회적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이다. 이렇게 인간을 비롯한 대상의 의미나 본질은 하나의 개체로서가 아니라 전체 안에서 다른 것들과 맺은 관계 때문에 결정된다는 관점을 ‘구조주의’라고 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인간은 결단의 주체가 아니며 인간의 특성과 정체성은 인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그가 속한 사회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구조주의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는 인간은 어떤 고립된 개인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사회 구조가 인간을 만들기 때문에, 인간을 이해하려면 인간의 구체적인 행동보다는 그 인간이 속한 사회 구조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관점에

따르면 소유를 중시하고 치열한 경쟁을 하며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 역시 현대 사회의 구조 아래에서 형성된 특성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서 그의 연구는 현대 사회의 구조 변화가 현대인들의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0.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후대 인류학자들은 포틀래치가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 ② 초기 인류학자들은 포틀래치를 위신을 얻기 위해 재산을 탕진하는 비합리적인 행위로 보았다.
- ③ 일반적인 증여는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④ 일반적인 경제적 교역은 사물의 가치를 따져 같은 값으로 교환한다는 점에서 포틀래치와 차이가 있다.
- ⑤ 후대 인류학자들은 포틀래치를 선물을 받은 사람이 답례의 시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호혜적 행위라고 보았다.

31. ㉠에 대한 ‘레비스트로스’의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른 부족과의 결혼을 유도하여 부족 간의 동맹을 약화시키는 규칙이다.
- ② 인류의 보편적인 현상이 아닌 인간의 본성에 의해 개별적으로 형성된 규칙이다.
- ③ 사람을 받아들인 부족은 부채감을 덜게 하고, 보낸 부족은 부채감을 갖게 하는 규칙이다.
- ④ 인간이 자연 상태를 벗어나 문명 상태로 발전한 상황에서 사회적 구조에 의해 성립된 규칙이다.
- ⑤ 다른 집단과 동맹을 맺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어 호혜적 교환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규칙이다.

32. 윗글의 ‘구조주의’와 <보기>의 사상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전통철학’에서는 인간이 선천적인 원리에 의해 미리 규정된 ‘특성’과 ‘본질’을 갖는다고 보았다. 그리고 인간은 그 특성과 본질을 이 세계에서 충실하게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존주의’에서는 인간은 결단의 주체이며 자신의 특성과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할 자유로운 의식과 권리가 있고, 스스로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실존주의에서는 인간을 하나의 현상이자 개별적인 존재로 보고 인간의 구체적인 행동에 관심을 두었다.

- ① 구조주의와 실존주의에서는 모두 인간을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지는 결단의 주체로 보는군.
- ② 구조주의에서는 실존주의와 달리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다고 보는군.
- ③ 실존주의에서는 구조주의와 달리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구체적인 행동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는군.
- ④ 전통철학에서는 구조주의와 달리 인간에게는 충실하게 실현해야 할 본질이 미리 규정되어 있다고 보는군.
- ⑤ 구조주의에서는 전통철학과 달리 인간의 특성은 집단 안에서 다른 것들과 맺는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군.

33. ㉠, ㉡의 의미로 쓰인 예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① [ ㉠: 그는 아이에게 용돈을 주었다.  
㉡: 지나친 기대는 학생에게 부담을 준다.
- ② [ ㉠: 선생님께서 학생에게 책을 주셨다.  
㉡: 그는 개에게 먹이를 주고 집을 나갔다.
- ③ [ ㉠: 오늘부터 너에게 3일의 시간을 주겠다.  
㉡: 나는 너에게 중요한 임무를 주겠다.
- ④ [ ㉠: 여행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다.  
㉡: 손에 힘을 더 주고 손잡이를 돌려야 한다.
- ⑤ [ ㉠: 그 사람은 모두에게 정을 주는 사람이다.  
㉡: 어머니는 우리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주는 분이다.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리고 성근 가지 너를 믿지 않았더니  
 는 기약(期約) 능(能)히 지켜 [두세 송이] 피었구나  
 촛불 잡고 가까이 사랑할 때 암향부동(暗香浮動)\*하더라  
 <제2수>

[A] 빙자옥질(氷姿玉質)\*이여 눈 속에 네로구나  
 가만히 향기 놓아 황혼월(黃昏月)을 기약하니  
 아마도 아치고절(雅致高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제3수>

동쪽 누각에 숨은 꽃이 [칠썩]인가 두견화(杜鵑花)인가  
 온 세상이 눈이어늘 제 어찌 감히 피리  
 알괘라 백설 양춘(白雪陽春)\*은 매화밖에 뉘 있으리  
 <제8수>  
 - 안민영, 「매화사(梅花詞)」 -

- \* 암향부동: 그윽한 향기가 은근히 떠돌음.
- \* 빙자옥질: 얼음같이 맑고 깨끗한 살결과 구슬같이 아름다운 자질.
- \* 아치고절: 우아하고 높은 절개.
- \* 백설 양춘: 흰 눈이 날리는 이른 봄.

(나)

나이가 들수록 격이 높아지는 것이 나무다. 경기도 용문사에는 천여 년 전에 심었다는 고령의 은행나무가 있어 45미터의 키에 아래 부분의 직경이 4미터가 된다니 산으로 치자면 백두요, 한라가 아닐 수 없다. 트락에 자질구레한 나무만 심어 놓고 바라보아도 한결 마음이 든든한데 그쯤 고령의 거목이고 보면, 내 하잘것없는 인생을 송두리째 맡기고 살아도 뉘우칠 게 없을 것 같다.

홍야향야\*로 일삼는 세속적인 생각에 젖어 사는 것이 너무나 치사한 것만 같아 새삼 허탈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창 앞에 대를 심어 소슬한 가을바람을 즐길 줄 모르는 바 아니요, 또한 눈부신 장미꽃이 싫은 바도 아니요, 오색영롱한 [칠썩]도 싫은 바 아니지만, 그런 관목\*보다는 아교목\*이 좋고 아교목보다는 교목\*이 믿음직해서 더 좋다. 욕심껏 꽃아 놓은 나무가 좁은 트락에 초만원이 되어 이제 어찌 할 도리가 없어 제일 먼저 장

미를 담 옆으로 분산시키고 아교목의 호랑가시와 교목인 태산목, 은행나무, 낙우송을 알맞게 자리 잡아 세운 것도 호화찬란한 장미처럼 눈부신 여생이기보다는 담담하기를 바라는 뜻도 있지만, 차라리 그보다는 날로 거목의 몸매가 잡혀가는 아교목들에게 끌리는 정이 더욱 도탑고 믿음직한 탓이기도 하리라.

낙우송 사이로 바라다보이는 유월 하늘에서는 가지가 흔들릴 때마다 그 질푸른 쪽물이 금시 쏟아질 것만 같아 좋거니와, 오월부터 개화하기 비롯한 태산목은 겨우 십 년이 되었는데도 [두세 송이]씩 연이어 꽃이 피는가 하면 그 맑은 향기가 어찌도 그윽한지 문향(文香) 십 리를 자랑하는 난(蘭) 또한 감히 따를 바 못 되리라.

[ 백련꽃 송이처럼 탐스러운 봉오리에 어찌면 향기를 가득 [B] 저장하고 있는 것만 같다. 아침저녁 솔깃이 흘러드는 그 향기를 맡아 본 사람이면 알리라.

㉠ 집 주변에 오류(五柳)를 가꾸어 ‘한정소언 불모영리(閑靜少言 不慕榮利)\*’의 도를 터득한 도연명(陶淵明)은 그대로 향기 높은 저 태산목 같은 거목이 아니었을까 생각될 때, 장미류의 관목처럼 눈부신 꽃이고 싶어 하는 데는 머리를 써도, 태산목처럼 격 높은 향기를 마음에 지니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에, 내 스스로 향기 지닐 마음의 여유 없음을 슬퍼할 따름이다.

(중략)

문 밖에 심은 버드나무도 벌써 10년이 가깝게 자라고 보니, 이른 봄부터 찾아와서 옥을 굴리듯 울어 주는 밀화부리\*도 버드나무가 없었던들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다. 그러기에 이 근방에서는 버드나무집으로 통할 뿐 아니라, 혹시 전화로라도 우리 집 위칠 묻는 친구가 있으면 어느 지점에 와서 문 앞에 버드나무가 세 그루 서 있는 집이라면 무난히들 찾아오게 마련이다. 당초엔 다섯 그루를 심어 정성 들여 가꾸었는데 이웃집에서 가을 낙엽에 성화를 내고 자기 집 옆에 서 있는 놈만은 베어 주었으면 하기에, 그 집 주인에게 처분을 맡겼더니 베어다가 장작으로 꽤 꽤 모양이고, 또 한 그루는 동네 애들이 매일 짓궂게 매달리는가 했더니 끝내는 꺾질을 홀랑 벗겨대는 등쌀에 기어 이 고사(枯死)하고 보니, 남은 세 그루가 옆채를 사이에 두고 태산목과 마주 보고 서 있게 되었다.

㉡ 그대로 다섯 그루가 자랐더라면 집 주변에 오류를 가꾸어 ‘한정소언 불모영리’의 도를 터득한 저 도연명의 풍모를 배우고자 함이었다니, 세 그루가 남게 되어 짓궂은 친구가 찾아올라치면 숫제 삼류선생(三流先生)이라 부르는 데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까닭은 삼류 인생을 살아가는 나에게 오류(五柳)선생은 못 될지언정, 삼류선생의 칭호도 오히려 과분한 것만 같아 설마 삼류선생이라 부르는 것은 아니겠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 신석정, 「향기 있는 사람」 -

- \* 홍야향야: 남의 일에 쓸데없이 참견하는 모양을 의미함.
- \* 관목: 키가 작고 원줄기가 가늘며 밑동에서 가지를 많이 치는 나무.
- \* 아교목: 교목과 관목의 중간 식물.
- \* 교목: 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이가 8미터를 넘는 나무.
- \* 한정소언 불모영리: 한가하고 조용하며 말이 적고 명예나 실리를 바라지 않음.
- \* 밀화부리: 참새목 되새과의 새.

34. [A]와 [B]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시선의 이동을 통해 대상의 변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자연물에 말을 건네는 어투를 활용하여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자연물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35. (가)와 (나)의 두세 송이와 철쭉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와 (나)의 '철쭉'은 모두 화자가 거부하는 대상이다.
  - ② (가)와 (나)의 '철쭉'은 모두 화자가 추구하는 대상을 부각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재이다.
  - ③ (가)와 (나)의 '두세 송이'는 모두 다른 자연물과 비교되는 소재이다.
  - ④ (가)와 (나)의 '두세 송이'는 모두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다.
  - ⑤ (나)의 '두세 송이'와 달리 (가)의 '두세 송이'는 추운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개화를 한 대상이다.

36.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은 '향기 지닐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나'의 자부심을, ㉡은 '삼류선생'이라 불리는 삶에 대한 '나'의 부끄러움을 나타낸다.
  - ② ㉠은 '태산목 같은 거목'이 되고 싶은 '나'의 꿈을 실현한 만족감을, ㉡은 '도연명의 풍모'를 배우고자 노력했던 '나'에 대한 자족감을 나타낸다.
  - ③ ㉠은 '한정소언 불모영리'의 도를 터득하지 못해 느꼈던 '나'의 슬픔을, ㉡은 '한정소언 불모영리'의 도를 터득한 후 느꼈던 '나'의 기쁨을 나타낸다.
  - ④ ㉠은 '격 높은 향기를' 지니고 살아가지 못하는 삶에 대한 '나'의 안타까움을, ㉡은 '오류선생'의 풍모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나'의 겸손함을 나타낸다.
  - ⑤ ㉠은 '오류를 가꾸어' 도연명의 도를 터득하고 싶었던 '나'의 소망을, ㉡은 '집 주변에 오류'를 가꾸지 못한 상황을 핑계로 도연명의 도를 저버리려는 '나'의 의도를 나타낸다.

37. <보기>는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생들이 (나)를 감상한 내용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선생님** : 수필은 글쓰기가 생활 주변에서 찾은 글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관적 정서를 드러내는 글입니다. 자기 고백적인 성격이 강한 수필은 삶에 대한 통찰과 가치관을 담고 있으며, 개성 있는 표현으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냅니다. 또한 독자들은 수필을 읽으며 글쓰이의 성격이나 삶에 대한 태도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작품에 나타난 수필의 특징을 확인해 봅시다.

**학생 1** : 아끼던 버드나무를 베고 싶다는 이웃에게 성화를 내는 모습에서 글쓰이의 성격을 엿볼 수 있어요. …… ㉠

**학생 2** : 자신의 삶이 눈부시기보다 담담한 인생이기를 바란다는 것에서 글쓰이의 삶에 대한 가치관을 엿볼 수 있어요. …… ㉡

**학생 3** : 세속적인 생각에 젖어 사는 것에 대해 허탈함을 느끼는 모습에서 글쓰이의 삶에 대한 태도를 엿볼 수 있어요. …… ㉢

**학생 4** : '-(으)리라'를 반복하여 나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에서 글쓰이의 개성 있는 표현을 찾아볼 수 있어요. …… ㉣

**학생 5** : 키우던 다섯 그루의 버드나무가 세 그루만 남게 된 일화에서 글쓰이가 자신의 생활 주변에서 글감을 찾은 것을 알 수 있어요. …… ㉤

- ① ㉠      ② ㉡      ③ ㉢      ④ ㉣      ⑤ ㉤

[38~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로 인한 대기 오염 및 기후 변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의 배출 억제를 위해 자동차 분야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오염 물질의 배출이 적은 친환경차가 주목을 ㉠ 받고 있다.

친환경차에는 전기차, 수소전기차, 하이브리드차가 있는데 이중 ㉡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하여 주는 모터만으로 구동되고, ㉢ 하이브리드차는 모터와 함께 ㉣ 내연기관처럼 연료를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바꿔 주는 엔진을 사용하여 구동된다. 내연기관차는 마찰 제동장치를 사용하므로 차가 감속할 때 운동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변환된 후 사라지는 반면, 친환경차는 감속 시 운동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배터리에 충전해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회생 제동장치도 사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있다.

하이브리드차는 출발할 때에는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모터를 구동하고 주행 시에는 주행 상황에 따라 모터와 엔진을 적절히 이용하므로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연비가 좋고 배기가스가 저감되는 효과가 있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엔진 없이 모터를 사용해 전기에너지만으로 달리는 차라 할 수 있다. 전기차는 고전압 배터리에 충전을 해 전기에너지를 모터로 공급하여 움직이고, 수소전기차는 연료 탱크에 저장된 수소를 연료전지를

통해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한다. 연료전지는 차량 구동에 필요한 수준의 전기에너지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수의 연료전지를 직렬로 연결하여 가로로 쌓아 만드는데 이를 스택(stack)이라 한다. 연료전지는 저장된 수소와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공기 속 산소가 만나 일어나는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 전기에너지를 생성하는데, 산화란 어떤 물질이 전자를 내어 주는 것을, 환원이란 전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물질이 전자를 얻거나 잃는 것을 이온화라고도 하는데 물질이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 된다.

수소전기차에는 백금을 넣은 촉매와 고분자전해질막을 지닌 연료전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다른 연료전지에 비해 출력이 크고 저온에서도 작동이 되며 구조도 간단하다. 연료전지의 -극과 +극에 사용되는 촉매 속에 들어있는 백금은 -극에서는 수소의 산화 반응을, +극에서는 산소의 환원 반응을 활성화한다. 그리고 두 극 사이에 있는 고분자전해질막은 양이온의 이동은 돕고 음이온과 전자의 이동은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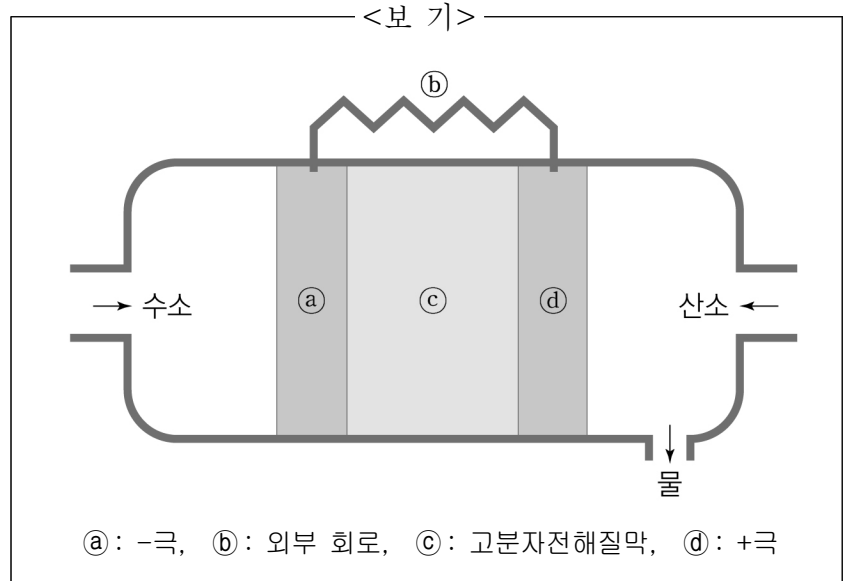
연료전지에서 전기에너지가 생성되는 과정은 수소를 저장한 연료 탱크로부터 수소가 -극으로, 공기공급기로 유입되는 외부의 공기 속 산소가 +극으로 공급되며 시작된다. -극에 공급된 수소는 촉매 속 백금에 의해 수소 양이온( $H^+$ )과 전자( $e^-$ )로 분리되고, 수소 양이온은 고분자전해질막을 통과해 +극으로, 전자는 외부 회로를 통해 +극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전자가 외부 회로로 흐르며 전기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생성된 전기에너지는 모터로 전해져 동력원이 되고 일부는 배터리에 충전된다. +극에서는 공급된 산소가 외부 회로를 통해 이동해 온 전자( $e^-$ )와 결합해 산소 음이온( $O^-$ )이 된 후, 수소 양이온( $H^+$ )과 만나 물( $H_2O$ )이 되어 외부로 배출된다.

수소전기차에 사용되는 수소는 가솔린의 세 배나 되는 단위 질량당 에너지 밀도를 지니고 있어 에너지 효율이 높다. 그리고 수소와 산소의 반응을 이용하므로 오염 물질이나 온실가스의 배출이 적고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공기를 필터로 정화하여 사용한 후 배출하므로 공기를 정화하는 기능도 한다. 그러나 고가인 백금과 고분자전해질막을 사용해 연료전지를 제작해 가격이 비싸다는 점, 수소는 고압으로 압축해야 하므로 폭발할 위험성이 커 보관과 이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다.

38. 밑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압으로 압축한 수소는 폭발할 위험이 크니 보관이나 이동에 어려움이 많겠군.
- ② 수소전기차는 공급되는 외부 공기를 필터로 걸러 사용하므로 정화된 공기가 배출되겠군.
- ③ 수소가 연료로 쓰이는 이유는 가솔린보다 에너지 효율은 낮지만 친환경적이기 때문이겠군.
- ④ 백금과 고분자전해질막을 대신할 저가의 원료를 개발한다면 연료전지의 가격을 낮출 수 있겠군.
- ⑤ 수소전기차를 구동할 수준의 전기에너지를 만들어 내려면 다수의 연료전지를 직렬로 연결해 만들어야겠군.

39. <보기>는 수소전기차의 연료전지에서 전기에너지가 생성되는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와 (d)에 들어 있는 금속은 각각 수소와 산소의 이온화를 촉진하겠군.
- ② (b)를 통해 전자가 흘러가는 이유는 (c)가 전자의 이동을 억제하기 때문이겠군.
- ③ (c)를 통과하여 (d)로 이동하는 수소 양이온은 (a)에서 전자를 잃은 수소이겠군.
- ④ (a)와 (d)에서 분리된 전자는 (b)에서 만나 전기에너지를 생성하겠군.
- ⑤ (d)에서는 수소 양이온과 산소 음이온이 결합하여 물이 생성되겠군.

4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 ㉢과 달리 연료 탱크를 제작할 필요가 없다.
- ② ㉡은 ㉠에 쓰이는 모터와 ㉢에 쓰이는 엔진을 주행 상황에 따라 이용한다.
- ③ ㉢은 ㉠, ㉡과 달리 감속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자동차의 주행에 활용하지 못한다.
- ④ ㉠, ㉡은 ㉢에 비해 배출되는 오염 물질과 온실가스의 양이 적다.
- ⑤ ㉠, ㉡은 ㉢과 달리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하여 출발한다.

41. 문맥상 ㉡과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회사의 미래를 위해 신입 사원을 받아야 하겠군.
- ② 내가 원하는 요구 조건은 무엇이든지 받아 주겠다.
- ③ 그 아이는 막내로 태어나 집에서 귀염을 받고 자랐다.
- ④ 그는 좌회전 신호를 받고 천천히 차의 속도를 높였다.
- ⑤ 예전에는 빗물을 큰 물통에 받아 빨래하는 데 쓰기도 했다.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종황이 친히 조정, 임응과 함께 병사를 거느리고 나아갔다. 과연 석벽 틈 사이에서 붉은 안개가 일어나고 독기가 어려 있었다. 종황이 손에 들고 있던 부채를 들어 한 번 둘러치자 그 기운이 사라졌다. 바로 그때 조정이 누런 껌을 열었다. 껌 속 에서 한 짐승이 날개를 퍼덕이며 나왔다. 큰 누런 닭이었다. 닭의 등은 큰 산을 지고 있는 듯하였고, 날개는 하늘에 드리운 구름 같았다. 닭이 석벽 위로 날아오르더니 무지개 같은 긴 목을 빼고, 초승달 같은 부리를 벌리며 크게 울었다. 그러자 갑자기 바위가 절로 갈라지며 한 괴상한 짐승이 나왔다. 짐승은 바위 가를 기어 다니다가 스스로 죽어 버렸다. 크기가 십여 장이나 되는 황금빛 지네였다. 모두 크게 놀라 얼굴빛이 창백해졌다.

“선생은 과연 하늘이 내신 신이한 사람입니다. 이 짐승이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알고 대비하였습니까?”

임성의 말에 종황이 웃으면서 말하였다.

“궤 안에 들어 있던 것은 ㉠ 닭의 깃털입니다. 신이 늘상 큰 바다에는 온갖 괴이한 족속들과 요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반수에게 준비시킨 것인데, 생각이 들어맞아 저 지네와 같은 독한 요괴를 없앨 수 있었습니다.”

종황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종황의 재주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즉시 섬을 떠나 배를 띄워 가는데, 바람이 순하고 물결이 고요하여, 배가 반석 위를 가듯 편하고, 화살같이 빨랐다. 임성이 종황에게 말하였다.

“내 일찍이 들으니 큰 바다에는 배를 삼키는 고기가 많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환란을 당하지 않은 것은 정말 다행스런 일입니다.”

“바다의 하찮은 족속들은 모두 동해신인 해악이 거느린 것들입니다. 해악이 이미 천명이 주공에게 향한 줄을 알고 물에 사는 생물들에게 우리를 훼방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킨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모든 요괴의 작변을 신이 약간 제어하기는 하였으나, 그 모든 것이 어찌 저 종황의 재주 때문이었겠습니까? 주공이 천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공이 만일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이 같은 대해에서 그만한 곤경을 겪고도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중략 부분 줄거리] 임성 일행은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서 ‘하늘에서 명을 받았으니 나라가 번창하리라.’라는 글이 새겨진 ‘전국옥새’를 얻은 후 한 섬에 도착한다. 종황이 임성을 대신하여 섬의 주인을 만나지만, 섬의 주인은 옥새를 내어 줄 것을 요구한다.

“사물에는 각각 주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그 물건의 임자가 아니면 그 물건이 오지 않는 법입니다. 나에게 보배가 있는 것은 그것이 본래 주인의 것이 아니어서 내가 먼저 얻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어찌 망령스럽게 욕심을 내어 스스로 잘못된 사람이 되려고 하십니까?”

“그 보배는 본래 내게 합당한 것이고 그대에게는 당치도 않는 것이요. 그래서 그대들로 하여금 스스로 이곳에 이르게 한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종황이 소매를 떨치고 일어나니, 그 사람이 종황의 손을 어루만지고 크게 웃으며 말하였다.

“그대는 나중에 뉘우치지 마시오.”

종황이 대답하지 않고 돌아와 보니, 배와 일행이 간 곳 없이

사라져 버렸다. 종황이 크게 놀라 급히 몸을 돌리니 그 사람이 벌써 뒤에 서서 크게 웃으며 말하였다.

“그대가 비록 온 천하를 다스릴 재주가 있다고 하여도 날개가 없으니 이 어려움을 어떻게 벗어나겠는가?”

종황이 즉시 주인을 청하여 바위에 함께 앉았다. 임응과 조정 또한 기척도 없이 뒤에 모시고 서 있었다. 종황이 마음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얼굴빛을 바르게 하고 말하였다.

[A] “주인의 재주가 범상치 않으니, 가히 하늘의 뜻을 알 것입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하늘의 이치를 따르는 사람은 창성하고,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사람은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하늘이 우리 주공을 내셔서 이 보배를 주셨으니, 이것으로 하늘의 뜻을 알 것입니다. 주인은 어찌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망령된 심술을 내어 굳이 빼앗으려고 하십니까? 제가 비록 어리석고 용렬하지만 일찍이 하늘의 계시가 적힌 천서를 얻어 음양의 변화를 약간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비록 바다를 열고 산을 뒤집는 재주가 있다고 한들, 저는 조금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대의 말은 옳지 않소이다. 그대는 비록神通하여 몸을 띄워 하늘에 오르는 재주가 있다고 하지만, 그대의 소중한 부하들의 목숨은 어찌하겠소?”

“결국 주인은 나와 싸우자고 하십니까?”

“그대가 진정 하늘이 명하신 사람으로 그 보배를 얻었다면 그대 말이 진실로 옳은 것이니 내 어찌 빼앗으려 하겠소. 하지만 그대의 관상을 보니 재주는 비록 주나라 때의 강태공이나 한나라 때의 제갈공명과 겨룰 만하지만, 제왕이 될 모습은 아니요. 그래서 그대가 보배의 임자가 아님을 아는 것이요.”

종황이 웃으며 말하였다.

“주인은 나만 보고 우리 주공은 보지 못하였구려. 주인은 하늘이 정하신 진정한 인물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대의 주공이 어디에 있소?”

“배 안에 계셨는데, 주인이 벌써 잡아가 놓고서 어찌 모르는 체하십니까?”

“만일 그대의 주공이 하늘의 명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어찌 하겠소?”

종황이 웃으며 말하였다.

“만일 그렇다면 보배를 받들어 주인께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만히 웃고 하인들에게 명하여 배를 밀고 나오라고 하니, 하인들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괴상히 여겨 의심하고 있는데, 이윽고 하인 몇 명이 산골짜기에서 배를 끌고 나왔다. 가볍게 다루는 것이 배를 짤 때 쓰는 북을 던지는 것 같았다. 모두 크게 놀라고 살펴보니 임성과 여러 장수, 장졸들이 모두 묶인 채 배 안에 엮드려 있었다. 종황이 즉시 맨 것을 풀고 임성을 청하여 바위 위에 앉게 하였다. 그 사람이 임성을 보고는 문득 놀라며 바위 아래 내려가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였다.

“소인이 알아 뵈지 못하고 하늘이 정한 일을 범하였으니 그 죄 만 번 죽어도 오히려 가볍다 할 것입니다.”

종황이 즉시 붙들어 자리에 앉히고 말하였다.

“그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며, 또 어찌 천명을 아십니까?”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머금고 스스로 낮추어 말하였다.

“저는 서해 용왕인 광덕왕입니다.”

- 작자 미상, 「태원지(太原誌)」 -

42.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임성은 요괴를 물리친 종황을 신이한 사람이라고 여겼다.
  - ② 종황은 요괴의 작변을 겪고도 사람이 상하지 않은 것이 임성 덕분에이라고 생각했다.
  - ③ 종황은 보배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믿어 서해 용왕의 요구를 거절했다.
  - ④ 서해 용왕은 종황의 관상을 보고 종황이 보배의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 ⑤ 서해 용왕은 하늘이 정한 인물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를 산골짜기에 숨겼다.

43.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요괴의 작변을 제어하기 위해 동해신인 해약이 임성에게 준 것이다.
  - ② 물결을 고요하게 만들어 배를 띄우기 위해 임성이 배에 실어 놓은 것이다.
  - ③ 종황이 바다에 있을 수 있는 요괴에 대비하기 위해 반수에게 준비시킨 것이다.
  - ④ 석벽 틈 사이에 어려 있던 붉은 안개와 독기를 없애기 위해 종황이 흔든 것이다.
  - ⑤ 지네를 갈라진 바위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 조정이 큰 누런 닭을 변하게 한 것이다.

44.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대방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동정심에 기대어 상대방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 ④ 상황을 과장하여 자신이 취한 행동에 대해 변명하고 있다.
  - ⑤ 옛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상대방의 요구가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있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태원지」는 주인공 임성이 자신을 따르는 호걸들과 미지의 대륙인 태원에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내용의 영웅 소설이다. 임성은 황제가 될 천명을 받은 인물로, 하늘로부터 ‘전국 옥새’를 받고 신적 존재인 용왕으로부터 천명을 인정받는다. 임성은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 같이 조력자의 도움으로 시련을 극복한다. 하지만 임성은 일반적인 영웅 소설의 주인공과 달리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도술을 부리는 등의 신이한 능력을 보이기보다는 황제가 갖추어야 할 내면적인 덕목을 보여 준다.

- ① 임성에게 보배를 준 것을 통해 하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종황의 말은 임성이 황제가 될 천명을 받은 인물임을 보여 주는군.
- ② 임성을 보고 서해 용왕이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는 장면은 임성이 신적 존재로부터 황제가 될 천명을 인정받은 인물임을 보여 주는군.
- ③ 종황이 황금빛 지네를 없애는 장면은 기존의 영웅 소설과 같이 임성이 조력자의 도움으로 시련을 극복하는 인물임을 보여 주는군.
- ④ 임성이 묶인 채 배에 잡혀 있는 장면은 일반적인 영웅 소설의 주인공과 달리 임성이 신이한 능력을 보이지 않는 인물임을 보여 주는군.
- ⑤ 서해 용왕이 임성 일행을 섬에 이르게 했다는 말은 임성이 황제가 갖추어야 할 내면적인 덕목을 가진 인물임을 보여 주는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